

# 잡지 『북한』의 문학사적 의미

- 70년대 수록 시를 중심으로 -

이성주\*

## 〈차 례〉

- 서론
- 『북한』 전체 수록 시 목록과 미발굴 작품
- 남과 북의 경계에서: 수록 시 분석
- 결론

### [국문초록]

『북한』은 중앙정보부가 설립한 북한연구소의 기관지로 1972년 1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결호 없이 발간되고 있는 월간 잡지다.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잡지가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문학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이 주목한 것은 첫째, 『북한』이 비록 정치적으로 편향된 북한학 전문지임에도, 시, 소설, 비평, 수기, 각종 산문 등 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의 경우, 서정주, 김중삼, 박두진, 정현중, 전봉건, 박남수 등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시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작품 중 일부는 그들의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굴 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둘째로 『북한』에 수록된 시의 상당수는 전쟁, 북한(고향), 통일 등을 소재로 쓰였고 분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매체의 성격과 결부되기에 정치 담론과 시의 관계성을 탐구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본 논문은 분단 인식을 드러내는 시편에서 인식적 편차가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잡지에 수록된 시가 단순히 정치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정치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복잡성을 지녔음을 논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그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북한』을 본격적으로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미발굴 시를 학계에 소개하였으며 매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 동국대학교 박사수료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에] 잡지 북한, 통일 담론, 분단 인식, 박정희, 김종삼, 미발굴 시

## 1. 서론

1972년 1월 창간되고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 『북한』은 1971년 말 중앙정보부 주도로 설립된 북한연구소에서 발행되었다. 잡지에는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북한 관련 제반 연구와 통일, 국제정세를 논하는 글이 주로 실렸고, 주요 필진 역시 정치, 외교, 경제 등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였다.<sup>1)</sup> 중앙정보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 『북한』은 당시 정권의 이데올로그 역할도 했는데, 북한연구소 초기 이사장이면서 1972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발행인을 맡은 이가 반공 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였다. 그는 또한 사상의 전파에 있어 대중문화의 중요성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sup>2)</sup>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에는 박정희의 담화문이 전재(全載)되거나 정부의 북한 정책에 호응하는 글, 그리고 반공주의의 문화적 전파를 염두에 둔 전쟁·전향 수기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친(親)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북한학’ 전문지(비문학 잡지)라는 인식이 원인이 되었을 테지만, 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북한』에 대한

1) 초기 편집위원은 신상초, 박희범, 김창순, 양홍모, 김점곤, 이기탁, 이용훈, 최창규, 김경원 등이었고, 이 중에는 박정희 정권과 친밀했던 인사도 있지만(김점곤 등) 대부분 정치 외교, 경제가 전공인 대학교수였고 일부는 50-60년대 지식인 잡지 『사상계』, 『청백』 등에도 글을 발표한 이력이 있다. 72년 당시 연구소 이사장이자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오제도였고, 73년도부터 육사 출신 김경옥이 그 자리를 맡았으며 77년부터는 김창순이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김창순이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북한연구소는 중앙정보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2) 오제도는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에서 간행한 반공 수기 『적화삼삭구인집』(1951) 편집에 관여하였다. 70년대에는 이미 반공 검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간첩이 이슈될 때마다 소환되었고, 같은 시기 각종 반공영화, 드라마 등에 실존 모델이 되어 그야말로 ‘반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지니, 「유신 이후의 반공영화와 오제도라는 ‘신화’ - 영화 특별수사본부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6, 한국극예술학회, 2017, 53-91쪽.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sup>3)</sup> 그러나 일단 이 잡지에는 전쟁·전향 수기뿐 아니라 시, 소설, 비평, 각종 수필과 콩트, 번역 등 문학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글이 상당수 실려 있고, 또한 정치적·문학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지닌 문인들이 참여했다. 가령, 1970년대 『북한』에 글을 발표한 문인 중에는 서정주, 조연현, 최정희, 백철 등 오늘날 순수문학, 혹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이후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1974)에 연루된 이호철, 정을병이나, 그 전에 통일혁명당 사건(1968)에 연루되었던 임중빈, 그리고 당시에도 「국토」 연작을 쓰며 현실 참여 시의 기수로 평가받던 조태일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고 참여한 문인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수록된 문학 관련 작품들을 확인하고, 매체와의 관련 속에서 이 사료들이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은 시를 중심에 두고 『북한』을 검토할 것인데, 우선 『북한』에 수록된 시는 서정주, 박두진, 김종삼, 정현중, 전봉건 등 문학사에서 중요한 이들의 작품이 포함되고, 그중 일부가 그들의 최근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굴 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일은 물론 시사(詩史)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하려는 것은 다만 미발굴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잡지에 수록된 시의 특징이 있다면 다양한 시인들이 참여했음에도 몇몇 모티프가 공통된다는 점인데, 그것은 예컨대 북한(고향), 한국전쟁, 통일 등을 소재로 삼아 '민족' 관념을 형상화하는 일군의 시를 말한다. 특히나 '분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시는 당시 정치

3) 작품 출처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잡지 『북한』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 전집 뒤에 실린 작품발표 목록에 서지사항으로 기록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이동순은 김현승의 최근 전집의 서지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굴 작품 중 『북한』에 발표된 김현승의 시를 언급하고 있고(이동순, 「김현승의 시의 서지오류와 발굴작품 연구」, 『비평문학』 70, 한국비평문학회, 2018, 145~165쪽) 조병화, 김지향의 전집 작품발표 목록에서 『북한』이 서지사항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역시 많지는 않다.

상황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북한』 수록 시에서 분단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나름대로 정치 담론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실증 연구의 차원에서 미발굴 시에 대한 조사 및 소개에 충실하면서도, 수록된 시에 나타나는 분단 인식과 민족 관념을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197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정하였다.<sup>4)</sup> 시기를 제한한 것은 70년을 전후한 시기 국제정세의 변화로 박정희 정부의 대(對)북한 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와 공명하듯 잡지에 ‘북한’을 다룬 문학작품이 다수 발표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7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유신체제가 강화되면서 잡지의 이념 지향이 노골화되고 문학 지면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부록에 목록화한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익숙한 문인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문학작품의 수도 감소하는데, 특히 1977년부터는 시 지면이 사라지고 ‘반공 소설’이라는 제호 하에 주로 단편소설만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점은 역설적으로 70년대 특정 시점까지 ‘북한’에 대한 시적(문학적) 발화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이 정치적 지향이 뚜렷한 잡지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단일한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본문에서는 잡지에 수록된 전체 시 목록을 살피고 주요 시인들의 전집에 실리지 않은 미발굴 작품을 학계에 소개하는 실증 중심의 작업과 분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시편들을 당대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 연구 대상이 주로 ‘시’에 한정된 만큼, 『북한』을 구성하는 물질적·문화적 조건이나 소설, 수기 등 여타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소략하며, 잡지의 종합적인 성격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논문은 그동안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북한』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과정

4) 『북한』에 수록된 모든 글은 논문 검색사이트(Riss, 교보문고 스콜라 등)를 통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주요 문학작품과 시 전체 목록을 부록과 본문에 정리해 두었다. 이를 활용하면 쉽게 작품 전문을 찾아볼 수 있기에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경우 미발굴 시 전문을 따로 논문에 옮겨두지는 않는다.

에서 미발굴 시를 소개·분석한다는 점에서, 매체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문학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북한』 전체 수록 시 목록과 미발굴 작품

이 장에서는 우선 1970년대 『북한』에 수록된 시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시 작품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북한』에 실린 시와 주요 시인들의 전집을 대조<sup>5)</sup>하여 전집에 없는 미발굴 시, 그리고 서정주처럼 발표 이후 제목이 바뀌고 문단 단위의 수정이 이루어져 개작의 정도가 큰 경우를 함께 소개한다. 먼저 전체 시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72~1979 잡지 『북한』에 실린 시 목록

순번	권호	이름	제목
1	1972.1 (1호)	김용호	탑
2	1972.2 (2호)	김현승	망향

- 5) 대조한 주요 시인들의 전집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김광섭,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김종삼, 이민호 외 편, 『김종삼 정집』, 북치는 소년, 2018.  
 김지향, 『김지향 시전집』, 양문각, 1998.  
 김현승, 『김현승 전집』, 시인사, 1985.  
 문덕수, 『문덕수 시전집』, 시문학사, 2006.  
 박남수, 『박남수 전집 1·시』,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8.  
 박두진, 『박두진 시 전집』(1-4), 홍성사, 2017(1); 2018(2-4).  
 박이도, 『박이도 문학 전집』, 창조문예사, 2020.  
 박제천, 『박제천 시 전집』, 문학이카데미, 2005.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설창수, 『설창수 전집』, 시문학사, 1986.  
 이동주, 송영순 엮음, 『이동주 시 전집』, 현대문학, 2010.  
 이성교, 장지익 편, 『이성교 시 전집』, 형설출판사, 1997.  
 전봉건, 남진우 편, 『전봉건 시 전집』, 문학동네, 2008.  
 정현중, 『정현중 시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조병화, 『조병화 시전집』, 국학자료원, 2013.  
 진을주, 『진을주 시전집』, 한누리미디어, 2017.

순번	권호	이름	제목
3	1972.3 (3호)	권일송	강물, 그리고 부활
4	1972.4 (4호)	박두진	새들의 고향
5		신세훈	북녘 아씨에게
6	1972.5 (5호)	고은	화신복상(花信北上)
7		김윤희	한탄강
8	1972.6 (6호)	조운제	6월의 메아리
9		김종해	말해다오 우리 시대의 영광을
10	1972.7 (7호)	김광섭	때를 노치고 통일도 노쳤네
11		정현중	쇠사슬 소리 들린다
12	1972.8 (8호)	서정주	단골 암무당의 미신술(美身術)
13		박봉우	남북적십자회담이어 모든 이에 고향을 주자
14	1972.9 (9호)	이철근	북에의 편지
15		장영역	소리없이 사라져 없어지리라
16	1972.10 (10호)	문덕수	영원한 꽃밭
17		성권영	동작동
18	1972.11 (11호)	설창수	호국상명(護國像銘)
19		김희로	세월 (Ⅲ)
20		유경환	변경인(邊境人)
21	1972.12 (12호)	이하윤	실향의 노래
22		황금찬	종소리
23		정재우	큰비
24	1973.1 (13호)	박두진	지금까지 우리를 갈라 놓았던 것은
25		권일송	철미는 달리고 싶다
26	1973.2 (14호)	김광림	시인의 죽음 -구자은 형에게
27		박성룡	남과 북
28	1973.3 (15호)	김후난	강물의 깊이
29		신효점	찬가
30	1973.4 (16호)	조태일	국토 (二七)
31		임진수	붉은 그렇게

순번	권호	이름	제목
32	1973.5 (17호)	이탄	밤의 시
33		김광협	창호지
34	1973.6 (18호)	고은	두만강으로 부치는 편지
35		이근배	영변약산
36	1973.7 (19호)	김종삼	남과 북
37		김지향	꽃들을 풀어준다
38	1973.9 (21호)	박희진	수유리 뜰
39		강은교	빛 꺼지고 빛 깨어
40	1973.10 (22호)	박재삼	신아리랑
41	1973.11 (23호)	김하림	숲의 사유
42		박제천	고백
43	1973.12 (24호)	김현승	피는 물보다 질다
44	1974.1 (25호)	전봉건	새 날에 빛의 노래를
45	1974.2 (26호)	이홍우	남북회담
46		강인섭	성야(聖夜)
47	1974.3 (27호)	박남수	망향
48	1974.4 (28호)	남승만	모서다 추방한 자유의 소리
49		신세훈	봄을 기다리며
50	1974.5 (29호)	김사행	눈 덮인 산
51		김사행	갈대
52		김하인	불
53	1974.6 (30호)	문덕수	전화
54		권오운	여름밤
55	1974.7 (31호)	남구봉	세월
56		윤상규	벼랑에서
57	1974.9 (33호)	송혁	여름정좌(靜坐)
58		김성영	나비
59	1974.10 (34호)	황금찬	꽃씨
60		문정희	제비

순번	권호	이름	제목
61		문중섭	한마디의 말도 없이 -유영수 여사의 서거를 추모하면서-
62	1974.11 (35호)	조병화	서울
63		김사행	고도
64	1974.12 (36호)	서정주	세모단초(歲暮斷草)
65		이은정	제야의 종을
66	1975.1 (37호)	성춘복	새 날 새 아침은
67		진을주	펼럭이는 깃발
68	1975.2 (38호)	김지향	거깃말 상자
69		이추립	임진강 부근
70	1975.3 (39호)	이홍우	남북회담 II
71		김광협	의문부(疑問符)의 사람들
72	1975.4 (40호)	김선영	나비의 집이 되어
73		유재영	남풍권(南風圈)
74	1975.5 (41호)	박회진	사행시초
75		호영송	비륜(飛輪) 아래서
76	1975.7 (43호)	김사행	정원(靜園)
77		정순영	남긴 가슴에 꽃은 피기요
78	1975.8 (44호)	이동주	내 서늘한 눈웃음도 -6.25 25주년에 붙여
79		박보운	실기(實記) B
80	1975.10 (46호)	이성교	울릉도
81		김사립	첫 서리 내린 아침
82	1975.11 (47호)	서정주	침향(沈香)의 노래
83		김호길	전우를 위한 4중주
84	1975.12 (48호)	윤상규	일박(一泊)
85		강은교	허총가 4
86	1976.1 (49호)	박이도	달밤
87		정현종	불어넣어요 당신의 숨을
88	1976.2 (50호)	이성부	보복



순번	권호	이름	제목
89		김은자	봄 음악
90	1976.3 (51호)	이정휘	어둠
91		김사행	성모상 앞에서
92	1976.4 (52호)	전봉건	꿈보다 먼저
93		정재우	날개
94	1976.5 (53호)	정재호	38선에서
95	1976.6 (54호)	이근배	꽃에의 질문(詰問)
96		유경환	شم바귀의 승천 - 6.25에 붙여
97	1976.7 (55호)	김사행	새벽바다
98	1976.9 (57호)	정광수	나뭇잎이 흔들릴 때
99		이은정	환희
100	1976.10 (58호)	이홍우	코리어의 가을 하늘같은 평화를
101	1976.12 (60호)	장영수	소식
102		강은교	바다 앞에서 -수증기에게
103	1977.4 (64호)	노익성	나무들
104		심상운	편지

1972년에서 1977년까지 잡지 『북한』에는 77명의 시인이 총 104편의 시를 발표했다. 김사행이 6편으로 가장 많고 서정주, 이홍우가 각 3편, 강은교, 김지향, 박두진, 정현종 등 18명의 시인이 2편씩을 발표했다. 간혹 시가 수록되지 않은 호가 있었지만, 1편에서 3편 정도가 비교적 꾸준히 실렸고 전체 지면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어도 월간지이기에 6년 동안 104편의 시가 수록될 수 있었다. 이는 비문학 잡지로는 적지 않은 편수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문학사에서 주목도가 높은 시인들이 이 잡지에 시를 발표했고 그중 일부는 이후 발간된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미발굴 시는 아니지만 서정주의 시 2편 「단골 암무당의 미신술」, 「세모단초」는 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두 편의 시는

이후 시집 『떠돌이의 시』(1976)에 각각 「단골 암무당의 밥과 얼굴」, 「모조리 돛이나 되어」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가령 「단골 암무당의 밥과 얼굴」은 원래 잡지에 발표된 「단골 암무당의 미신술」에서 마지막 한 문단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고, 「모조리 돛이나 되어」는 10행으로 이루어졌던 시가 시집에 실리면서 5행으로 줄어 내용의 절반이 생략되었다. 간혹 다른 시인의 작품도 시집에 실리면서 개작되기도 했지만, 서정주와 같이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p>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약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넣어 둔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뼈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어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오.</p> <p>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수(潮水)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입니다.</p> <p>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용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p> <p>-「침향」(『질마재 신화』)</p>	<p>바닷물도 산골물을 만나려와 만나는 이 아쉬운 저녁 때는 무엇을 할까? 산에 산에 참나무도 목이 잠긴 소리로 만나자 만나자 나도 만나자 하네.</p> <p>참나무의 소원대로 저 참나무 베혀서 바닷물과 산나물이 만나는데 넣을까? 참나무가 그리워 거기 깊이 갈았아 백년 천년을 안겨있게 해줄까</p> <p>바닷물과 산골물이 만나 합수(合水)치는 곳 참나무를 넣어두면 침향(沈香)이 된다 하네. 백년뒤에 천년뒤에 누가 꺼내 볼사위 그 향기에 이 아쉬움 알게 해볼까?</p> <p>-「침향의 노래」(『북한』 1975년 11월)<sup>6)</sup></p>
--	---

또한 『북한』에 수록된 서정주의 다른 시 「침향의 노래」(1975년 11월)는 시집 『질마재 신화』(1975년 5월)에 실린 「침향」과 소재가 겹치지만, 시집이 발간된 이후에 발표되었고 시의 형식과 내용 모두 시집에 실린 시와 큰 차이

6) 맞춤법에 문제가 있지만 원문 그대로 옮겼다. 또한 논문 검색사이트에서 '침향의 노래'로 검색되는데 침향(沈香)이 맞다.

를 보인다. 위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침향」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진 산문 형식으로 ‘습니다’ 체를 주로 사용했는데, 「침향의 노래」는 ‘하네’, ‘까?’ 등의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운문 형태의 시다. 형식과 내용 모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전집에 미수록된 시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 신년시나 송년시(기)와 같이 일반적인 시의 형식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시, 기존에 언급된 김현승의 「망향」이나 김종삼의 「남과 북」 등을 제외하면<sup>8)</sup>, 전집이 발간된 주요 시인들의 작품 중 총 11편을 미발굴 시로 볼 수 있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박두진, 「새들의 고향」(1972.4. 4호)
- 김광섭, 「때를 노치고 통일도 노쳤네」(1972.7. 7호)
- 정현중, 「쇠사슬 소리 들린다」(1972.7. 7호), 「불어넣어요 당신의 숨을」(1976.1. 49호)
- 설창수, 「호국상명」(1972.11. 11호)
- 김지향, 「꽃들을 풀어준다」(1973.7. 19호), 「거짓말 상자」(1975.2. 38호)<sup>9)</sup>
- 박남수, 「망향」(1974.3. 27호)
- 진을주, 「펼럭이는 깃발」(1975.1. 37호)
- 이동주, 「내 서늘한 눈 웃음도」(1975.8. 44호)
- 서정주, 「침향(沈香)의 노래」(1975.11. 47호)

이들 시 중 서정주, 김지향, 진을주의 시는 매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시인들의 개성이 묻어 있고 주제와 형식 또한 제각각인 경우로, 잡지에 수록된 시 중 김하림, 박제천, 강은교, 문덕수 등 꽤 많은

7) 박두진, 「지금까지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은」, 전봉건, 「새 날에 빛의 노래를」; 김현승, 「피는 물보다 짙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김현승의 시는 이동순의 앞의 글에서, 김종삼의 시는 이성주, 「김종삼 시에서 실증연구의 중요성과 「音」, 「남과 북」의 발굴과 의의」, 『현대시학』 2019 3/4월 호, 110~125쪽.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9) 김지향의 전집 뒤쪽 작품 연보에 「거짓말 상자」의 서지사항이 적혀 있으나, 전집에 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꽃들을 풀어준다」는 작품 연보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시인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발표된 작품이 모두 매체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작품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들도 물론 개별 시인 연구에 있어서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매체와 관련성이 높은 시편이다. 미발굴 시 11편 중 3편을 제외한 8편이 직·간접적으로 매체와 관련되는 것처럼, 이 잡지에 수록된 시편의 상당수는 ‘전쟁’, ‘북한’, ‘통일’ 등을 소재로 하며 ‘분단된 국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분단에 대한 인식은 물론 민족(국민)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일과 이어지기가 쉽다. 예컨대, 박두진의 「새들의 고향」이나 박남수의 「망향」은 모두 ‘고향’을 소재로 하면서 그 고향을 민족(국가)의 기원으로 설정하는데, 특히 박남수는 고향을 북한의 지명이자 ‘민족시인’ 김소월을 상징하는 ‘영변의 약산’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월남민 특유의 정체화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sup>10)</sup> 또한 김광섭, 설창수, 정현중, 이동주의 시는 ‘한국전쟁’의 흔적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경우로, 이때 전쟁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그저 전쟁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는 단순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쟁이 특정한 민족 정체성을 표상하기 위한 소재로 쓰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첫째로 이 잡지의 중요성은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포함하여 시사(詩史)에 누락된 시편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 있다. 물론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10) 이는 북한에 있는 고향을 일종의 ‘소여(所與-주어진 것)로 설정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타자’인 월남민이 반공주의 담론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년대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실향민향우회지’에는 개인적인 고향의 이미지가 단일한 공동체의 집단 기억으로 재현되는데, 가령 북한 지역 출신인 식민지시기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시도 같은 것이 그러하다. 월남한 시인 박남수가 고향의 전달대를 그리위하며 ‘영변의 약산’(민족시인 김소월)을 소환하는 맥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용재, 「소여(所與)로서의 고향과 그 주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참조.

말하기 어렵다. 『북한』의 존재를 몰랐거나 실수일 수도 있으며, 또한 정치적 인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든 그간 연구되지 못한 작품 다수를 발굴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소재를 공유하는 시에서 나름의 인식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두진의 「우리를 지금까지 갈라놓았던 것은」에서는 “우리들의 겨레는 한줄기의 피 연면하게 흐르는 한 핏줄이었”지만 그것을 갈라놓은 것은 “이념타”이었다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북한을 타자로 두고 남한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시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 수록 시는 분단 상황을 가시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매체의 특성과 결부되지만, 분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혹은 북한을 경유한 민족 관념이 균질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월남 문학을 연구하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분단 현실에서 민족(국민)적 정체성은 ‘하나의 민족’과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중층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면<sup>11)</sup> 『북한』 수록 시에도 이러한 딜레마가 감지되는 것이다.

### 3. 남과 북의 경계에서: 수록 시 분석

본 장에서는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시편을 크게 세 계열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북한을 타자화하면서 남한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경우로 ‘남한(한국)’이라는 국

11) 정주아는 주로 한반도 이북을 ‘경계’로 하는 것과 이북과 이남을 나눈 3.8선이라는 ‘경계’ 사이에서 구성되는 월남민의 복잡한 정체성을 논한다. 남북 모두에서 단일민족 신화는 중요한 통치 이념이었으며, 동시에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를 타자화한다. 그런 점에서 경계선은 “정치적 담론의 맥락에 따라 그때그때 용이하게 변형되어 때론 북단의 것으로, 때론 중앙의 것으로 재현”되고, 월남민의 경계 넘기의 의미도 중층적이고 가변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250쪽. 다양한 시인이 참여한 만큼 『북한』 수록 시에서 월남민의 입장이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에 속하지만, 같은 이유로 분단에 대한 인식이 정치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중층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가적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시. 둘째, 남/북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를 민족의 국토로 상상하는 경우로 통일된 민족 정체성을 형상화하려는 시. 셋째, 월남민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남/북이라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다.

우선 첫째 계열에 속하는 시는 가장 정치적이면서 기존의 반공 담론에 편입되기 쉬운 경우다. 예컨대 이는 이동주의 「내 서늘한 눈웃음도」에서 “내 서늘한 눈웃음/ 앗아간 것도” “서정시가 거칠어진 것도” “철없는 그들” 즉, “북괴 악당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발화로 나타나거나,<sup>12)</sup> 신세훈의 시 「북녘 아씨에게」처럼 남한 체제의 우위를 은근하게 선전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체 시에서는 성권영, 낭승만, 조운제 등의 시가 이에 속할 수 있다. 신세훈의 시 「북녘 아씨에게」의 전반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외로이 놓인 섬밭 꽃들에  
 모래벌 벌레들이 물건너 날아온다.  
 북녘아씨야. 짚레 속뉘 피는  
 이 따스한 동네에 와 살고 싶잖니?  
 멀고 흰 국경선, 이빨 떨 적에  
 남녘 들 기름진 밭두렁 돌며  
 두엄 내는 소풍경소리 안들리든?

- 신세훈, 「북녘 아씨에게」(1972.4), 부분

남쪽을 ‘따스한 동네’, ‘기름진 밭두렁’으로 표상하며 긍정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위 시는 남한을 북한과의 대비 속에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체제의 우위를 드러낸다. 전형적으로 반공주의 담론 내에서 통용될 법한 시이며 그렇게 복잡한 인식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

12) 한국전쟁기 북한(적)을 ‘청년’으로 재현하면서, 그들에게 철이 없고 미숙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반공 담론 내 북한 표상의 한 전형이다. 반제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참조.

다. 그러나 이 시에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체제 우위를 드러내는 와중에, 북쪽의 사람을 ‘북녘아씨’로 그러니까 젠더화된 대상으로 호명한다는 점이다.

북한을 여성으로 표상하는 방식은 『북한』 발간 초기에 사진을 통해서도 등장한다.<sup>13)</sup> 이때 북한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이미지가 부여되며, 이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공산)화되지 않은 ‘비정치적 주체’로 여성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군사훈련에 동원되거나 몸을 쓰는 일은 ‘남자들의 일’인데 북한에서는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기에, 성별 분할의 질서가 반공주의에 결합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신세훈의 시는 시적으로 탁월한 것도, 특별한 인식을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계급적, 젠더적 분할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시에 각인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계열의 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경우로, 남/북의 경계선을 지우며 ‘하나의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령, 「파보면, 이 땅의 어디서나/피가 솟을 것이다」로 시작하는 정현종의 「쇠사슬 소리 들린다」에서처럼 분단 혹은 전쟁의 상처를 민족이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거나, 박성룡의 시 「남과 북」의 “남과 북은/막혔어도/오가는 바람은/막지 못했다”라는 묘사처럼 이념과 정치의 산물인 3.8선이라는 경계를 ‘탈정치화’된 자연(바람)은 넘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에서처럼 탈정치화된 ‘자연’과 이념과 정치의 산물인 휴전선(분단 상태)을 대비시키면서, 통일된 조국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둘째 계열의 시에 자주 등장한다. 이 계열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특징을 공유하는 고은의 시 「화신북상(花信北上)」 일부를 인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어서 원혼이 된다

13) 가령 『북한』 발간 초기, 잡지 앞쪽에는 북한의 풍경이나 북한 주민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특히 노동하는 여성, 군사훈련이나 체육(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의 사진이 강조된다. 사진 밑에는 그들이 공산주의자에게 희생된 무고한 이들로 보일 만한 문구를 적어두는데, 특히 여성의 사진 밑에는 남성도 하기 어려운 노동(훈련)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북괴의 몰인정함을 비판하는 식의 문구가 들어간다.

저 세상으로 못가는 원혼이 된다  
 서울여자들아 그대들은 아느냐  
 밤마다 내가 원혼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저 추운 두만강 남양읍으로 간다  
 여러 산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오르는 花信이다  
 가는 곳마다 서러운 우리나라의 꽃을 피게하고  
 금강산 노루봉 비탈이나  
 개마고원의 자작나무 숲까지도 깨워서  
 내 원혼으로

- 고은, 「花信北上」(1972.5), 부분

위 시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소식이라는 뜻의 화신(花信)이 되어 “휴전선을 넘”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람’, ‘꽃’ 등 ‘자연’은 이념과 정치의 산물인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탈정치화’되어 있고, 위 시에서 화자가 바로 그러한 존재 그 자체로 묘사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탈정치화’라는 표현은 앞서 신세훈의 시에서 여성이 정치적 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의미인 ‘비정치화된 주체’와는 다른 맥락이 부여된다. 위 시에서 화자는 ‘탈정치화’되어 이념(정치)을 넘어 민족적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정치의 바깥(자연, 신, 영혼, 피 등)을 다시 정치의 영역(민족 정체성의 형성)으로 끌어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둘째 계열의 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지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북한을 타자화하며 남한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첫째 계열의 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세훈의 시와 마찬가지로 위 시의 화자 역시 ‘서울여자들’을 호명하며, 특정 대상을 젠더화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화자가 스스로를 ‘원혼’으로 혹은 ‘탈정치화된 존재’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로 표상하는 것과 달리, ‘서울여자들’은 화자가 아는 것을 ‘모르는’ 존재로 타자화된다. 즉,



여기서 ‘서울여자들’도 지식(업)의 영역 혹은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이 역시 ‘민족’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성적 분할의 차별적 질서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는 통일된 민족 정체성을 회구하면서도, 이를 위해 내부적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물론 같은 계열의 시라도 위에서 분석한 시의 특징을 모두 공유하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에 수록된 첫째, 그리고 둘째 계열의 시편은 결국 민족 혹은 국민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 민족 상상은 구체적인 현실이나 개인적 정서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미 담론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정된 민족 관념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은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시가 자주 그러하듯, 불가피하게 시의 내재적 자율성이 상실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산소에 갔다  
그때 내 나이 여덟살

할머닌 닭고기와 쇠고기 나만 주었다  
어머니 눈은 사팔뜨기였으나 얼굴은 고왔다  
외할아버지 얼굴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와 어머니  
전답이 얼마 안남았다고 울먹거렸다

할아버진 황해도  
할머닌 평안남도  
어머닌 경기도

각각 문혀 있다

- 자리 잡혀 가는 콩포기의 줄기들처럼.

김종삼, 「남과 북」(1973.7), 전문

그러나 『북한』에는 월남민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분단에 대한 인식을 ‘민족’ 혹은 ‘국민’ 정체성으로 수렴시키기보다는, 민족과 국민의 경계 사이에 놓인 주체를 부각하거나 그 경계 자체를 묻는 방식의 시도 존재한다. 특히 인용한 김종삼의 시는 ‘월남’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기억의 단편들을 늘어놓다가 돌연 할아버지(황해도), 할머니(평안남도), 어머니(경기도)가 각각 다른 곳에 문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산(離散)의 감각을 드러낸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시 제목이 ‘남과 북’이라는 점, 『북한』에 발표된 시편의 상당수가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 대한 비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 역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문혀 있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을 ‘증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증언은 김종삼 특유의 ‘침묵’으로 사건을 환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화자가 비극적 상황을 스펙터클하게 재현하지도, 감정을 토로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내보이지도 않으며 그저 거리를 두고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유의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지만, 김종삼의 시는 『북한』에 실린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면서도, 그것이 민족, 혹은 국민적 정체성으로 쉽게 수렴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용된 시의 화자는 민족/국민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의식을 보이기도는, 어디에도 정주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 정서만을 선연하게 드러낼 뿐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북한』에 수록된 시 중에는 월남의 기억과 이산의 감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있고, 이는 분명 민족(국민)적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앞선 두 계열의 시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분단 인식을 드러내는 시편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이상의 분석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특정 계열의 시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잡지에 수록된 시들이 당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보다 복잡한 의미를 거느리고 있고, 또한 시마다 분단에 대한 인식적 편차가 나타나기에 이들 시를 단순히 정치에 동원된 획일적인 텍스트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본 논문의 목적이었던 『북한』이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 될 수 있고, 또한 후속 연구를 요청하는 연쇄적인 질문을 낳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이 시기 북한 혹은 분단과 같은 정치적 사항을 다룬 문학작품이 양적으로 많아졌을 뿐 아니라 다양하게 창작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또는 당대적인 맥락에서 북한의 문학적 재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들 말이다.

#### 4. 결론

『북한』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대상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잡지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행 연구가 드물기는 하지만, 초기 북한학의 형성 과정을 논의한 연구에서도 이 잡지는 ‘지피지기승공’에 입각한 정부 주도의 반공계몽, 대중동원을 목적으로 한 매체로 간략히 언급된다.<sup>14)</sup> 그러나 승공을 위한 반공계몽, 대중동원은 50년대부터 줄곧 정부가 해온 일이었기에, 『북한』이 그러한 일을 했음을 지적하는 일보다 이 잡지가 시기적으로 왜 70년대에 창간되었는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오제도든 「창간사」<sup>15)</sup>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지하면서도 기존의

14) 이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은 예컨대 (60년대 북한학은) “지피지기승공(知彼知己勝共)에 입각한 통일·안보의 차원에서 논리개발과 반공계몽, 대중동원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연속선에서 “중앙정보부 심리전국의 외곽단체로 설립된 북한연구소와 기관지 『북한』(1972.1 창간)도 정부 주도의 공세적 통일정책을 위한 대내외적 프로파간다의 긴급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인과」,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56쪽.

15) “지금 판문점에서는 만인주시하에 적십자회담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금껏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를 강화할 것을 역설했지만, 『북한』에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와 냉전 질서의 약화를 상징하는 닉슨 독트린(1969), 중공의 UN가입(1971)과 대만(자유중국)의 탈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창간호에서부터 특집으로 '72년 아시아가 잉태한 것'이라는 제호 아래 잡지 편집위원 네 명의 글이 발표되었는데,<sup>16)</sup> 세부적인 주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 하락, 중공의 UN 가입과 미국과의 교류 등 냉전체제 약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을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었다. 같은 시점에서 박정희 정부는 중립국 뿐 아니라 공산권 국가와도 실리외교를 펼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그전까지 있을 수 없었던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sup>17)</sup>

반공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공산권(북한)에 대화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냉전 질서의 약화가 뚜렷해진 시점에서 지배 담론이 취했던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이며, 그 둘은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 상호공모하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냉전 질서의 약화는 반공을 주요 근거로 삼은 남한의 정치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었고, 지배 담론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잡지 『북한』에서도 북한, 통일, 분단에 대한 발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고, 특히 70년대 특정 시점까지 시적(문학적) 발화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당대 정치 담론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한 것은, 당대 정치 담론과 맞물려 『북한』이 창간되었고, 이 잡지에 북한, 통일, 분단 인식

---

고 일부 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대공감정을 너그러이 하고 해빙기류다. 현상고정화다 하는 조류에 휩쓸려 가는가 하면 일부 국민층은 이같은 오늘의 국내외정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이 결의하였으니까 전한반도가 소유권을 등기한 집과 같이 우리의 국토인데,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당하고 있다. (오제도, 「창간사」, 『북한』, 1972.1, 2~3쪽.)

16) 신상조 「사강(四疆)대립과 한반도」; 김점곤, 「동북아에 있어 사대국(四大國)의 역학 관계」; 박희범, 「사극(四極)화정세와 북괴경제」; 김창순, 「중공의 유엔가입과 자유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17) 김현철, 「1970년대 초 박정희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자주·통일 외교의 모색」, 『통일정책연구』 13, 통일연구원, 2004, 4~9쪽.

등을 드러내는 상당수의 문학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으나, 잡지에는 조정래 초기 단편이나 이문구의 소설처럼 매체의 성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 실리기도 했고,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김질락의 옥중 수기 「주암산」이나 각종 반공 소설 등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글이 실려 있기도 했다. 또한 근미래에 통일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둔 서사, 가령 남한에 정착하여 대학교수를 하는 성공한 월남 지식인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대면할 것을 상상할 때 발현되는 심리(죄책감, 그리움)를 보여주는 소설<sup>18)</sup> 등 이전에 등장하지 않던 서사도 발견된다.

시 분석을 통해 이 글이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잡지에 수록된 작품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정치 담론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북한』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러한 후속 연구를 열기 위한 예비적 논의로, 그 가능성의 일단을 확인한 것이다.

---

18) 오영석, 「제3의 여인」(1972.8), 박경수, 「먼 은하」(1972.12) 등이 대표적이다.

## 부록

[표 2] 1972-1979 잡지 『북한』에 실린 소설, 르포, 번역, 수기, 비평 등 목록<sup>19)</sup>

권호	이름	제목	장르	비고
1972.1 (1호)	임중빈	뉴 레프트란 무엇인가	평문	
	허근욱	스베트라나와 나의 오솔길	소설	[연재소설] 총 12회 <sup>20)</sup>
	손소희	꽃피는 계절	소설	[연재소설] 총 3회
1972.2 (2호)	조연현	문필가 협회시대	산문	[나의 반공투쟁기]
1972.3 (3호)	김집	관문점 낙수(落穗)	르포	총 5회
	박순천	수난의 90일	수기	[내가 겪은 6.25]
	양주동	해서, 종산 그리운 고장 (상)	산문	[두고 온 산하]
	정비석	묘향산과 동룡굴	산문	[두고 온 산하]
	1972.4 (4호)	황신덕	사선을 넘어서	수기
	양주동	연애의 절승	산문	[두고 온 산하]
	양한모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었다	수기	
	하근찬	피 빛 황혼	소설	단편
1972.5 (5호)	강예복	북으로 간 이태준의 그 후	픽션?	
	김소운	진남포, 묘향산	산문	[회상의 북녘명]
	이문구	이풍현	소설	단편
1972.6 (6호)	이항구	춘원 선생은 이렇게 최후를 마쳤다	논픽션?	
	양주동	공란(共亂)의 교훈	수기	[赤禍三潮 구인집] <sup>21)</sup>
	백철	사슬로 묶여서 3개월	수기	[赤禍三潮 구인집]
	최정희	난중일기에서	수기	[赤禍三潮 구인집]
	유인용	대동강	논픽션	
	1972.7 (7호)	강대진	하늘과 땅 사이	수기
	이기봉	탈주일천리	논픽션	

19) 잡지에는 문학가들의 짧은 수필이나 대담 등도 실려 있는데 대부분 목록에 넣지 않았다. 가령 신경림 시인은 「일요일」(1975년 5월호)이라는 2쪽 남짓의 짧은 수필을 발표했다. 일요일이 되면 시골 장터로 소여행을 간다는 내용이며, 시골에 대한 시인의 인상이 담겨 있어 일부 연구자에게 사료가 될 수 있겠으나 지면의 경제를 위해 이런 종류의 글은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20) 연재물의 경우 최초 발표한 지면 정보만 표기하고, 비고에 총 몇 회 연재했는지를 적어두었다. 그

권호	이름	제목	장르	비고
1972.8 (8호)	선우휘	영원한 향수, 정주	산문	[두고 온 산하]
	손소희	결심	수기	[赤禍三朔 구인집]
	오영석	제3의 여인	소설	단편
1972.9 (9호)	방인근	수난 삼개월의 비통	수기	6.25 수난 회상기
	이건영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상)	소설	중편
1972.10 (10호)	이건영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하)	소설	중편
1972.11 (11호)	박랑원	축건	희곡	
	곽학송	동족	소설	단편
1972.12 (12호)	박경수	먼 은하	소설	단편
1973.1 (13호)	정을병	왕건의 길	소설	연재소설 총 5회
	김용운	그 주말	소설	단편
1973.2 (14호)	김병영	푸른 메아리	수기	옥중 (전향) 수기 연재 총 19회
	이문구	입지사록(壬子隨錄)	소설	단편
1973.3 (15호)	한하운	함흥차사의 내 고향 함흥	산문	[두고 온 산하]
1973.6 (18호)	허근욱	젓소	소설	단편
	김문수	유고기	소설	단편
1973.7 (19호)	곽학송	가면	소설	단편
1973.8 (20호)	최준	인간소모품	논픽션	
	차베크	잃어버린 밤의 이야기	소설	동구단편소설선 <sup>22)</sup>
1973.9 (21호)	이호철	남과 북에서	칼럼	
1973.10 (22호)	한문영	밤의 소리	소설	단편
1973.11 (23호)	박순녀	들국화처럼	소설	단편
	한문영	밤의 소리 (하)	소설	단편
1973.12 (24호)	안장환	설화	소설	단편
	오찬식	청부업 (상)	소설	중편
1974.1 (25호)	이항구	북한의 작가대열 속에서	논픽션	
	오찬식	청부업 (중)	소설	중편
	오탁번	전야제	소설	연재 총 6회
	조정래	상해진단서	소설	단편

권호	이름	제목	장르	비고
1974.2 (26호)	오기완	탁류	논픽션	
	오찬식	청부업 (하)	소설	중편
1974.3 (27호)	편집부	박열 (상)	실록	
	우길명	무정	논픽션	
1974.4 (28호)	편집부	박열 (하)	실록	
1974.5 (29호)	김선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수기	[간접수기] 연재 총 17회
	이철주	북괴군 대장 김창봉의 사형	논픽션	
1974.6 (30호)	백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무엇인가	비평	[특집] 변화와 베일속의 북한, 그 근본적 의문 - 문화
1974.7 (31호)	김병노	도륙의 장	논픽션	
	김윤식	계급주의 문학론의 검토	논문	
	김학수	솔제니친의 문학과 사상	논문	
	신연자	푸쉬킨의 「청동마상인」	논문	
	김성종	낮	소설	단편
1974.8 (32호)	송영	야학	소설	단편
	박용숙	이설(異說) · 삼국유사	소설	연재 총 12회
1974.9 (33호)	이기봉	9월의 진격	논픽션	
	송숙영	추적	소설	단편
	한용환	추억, 1950년대	소설	단편
1974.11 (35호)	유승규	우직의 결실	소설	단편
	양문길	미제의 수첩	소설	단편
1975.1 (37호)	유혹열	서북청년회	소설	[소설실록] 연재 총 14회
	강호무	홍물	소설	단편
1975.2 (38호)	조정래	청한	소설	단편
1975.3 (39호)	김질락	주암산	수기	연재 총 21회
1975.4 (40호)	U.T.수	자유에의 개가	수기	중국국민당의 대공방첩수기
	김동현	보이지 않는 손	논픽션	
1975.6 (42호)	김일동	암울한 여로 -나는 간첩번호 1336호 (상)	수기	대남간첩전향수기
1975.7 (43호)	조달진	육탄용사 실천기	수기	6.25 회고



권호	이름	제목	장르	비고
	정구중	부산 월남 난민수용소	르포	
	김일동	압울한 여로 -나는 간첩번호 1336호 (하)	수기	대남간첩전향수기
1975.8 (44호)	오찬식	지리산	논픽션	
1976.3 (51호)	김성호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	르포	
1976.6 (54호)	문정희	잊고픈 상흔의 의미로	수기 (산문)	[특별편성: 우리에게 6.25란 무엇인가]
	오규원	얼룩진 유년 동화가	수기 (산문)	[특별편성: 우리에게 6.25란 무엇인가]
	이병주	조선공산당	소설	연재 총 12회
1976.11 (59호)	한문영	동트는 산하	소설	연재 총 12회
1976.12 (60호)	백철	고향과 배추밭	산문	[망향에 산다]
1977.5 (65호)	송민호	북한의 문예정책과 「중자론」	평문	
1977.9 (69호)	백철	문학사상과 공산주의	평문	[특집/공산주의와 현대사상]
	장수철	어떤 망향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7.10 (70호)	정구창	다감한 시절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7.11 (71호)	이성훈	그 해 여름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1 (73호)	최은휴	석장(石杖)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2 (74호)	김문수	어떤 세막 풍경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3 (75호)	한문영	바람은 불고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4 (76호)	김성원	북한 문예작품의 창작과 조건	평문	
	송민호	『북한문학』의 초기형성과정 연구	평문	
	이철주	북한예술인들의 현주소	평문	
	이정	높에 빠진 천사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5 (77호)	이진우	무너진 다리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6 (78호)	이문희	정재(淨財)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7 (79호)	이정환	이 기막힌 날의 만남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8 (80호)	허근욱	2000년 1월 1일 (상)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9 (81호)	구중서	이데올로기와 문학	평문	
	허근욱	2000년 1월 1일 (하)	소설	[반공 단편소설]

권호	이름	제목	장르	비고
1978.10 (82호)	전병순	사반세기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8.11 (83호)	양태진	재북작가론	평문	김일성의 고용대서(雇傭代書)
	이성훈	그해 가을, 그리고 겨울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1 (85호)	양태진	재북작가론 II	평문	시인편
	김태영	도망병과 편지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2 (86호)	양태진	재북작가론 III	평문	희곡, 평론가 편
	이성훈	잔인한 여름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3 (87호)	김태영	전상(戰傷)	소설	[반공 단편소설] 연재 4회
1979.7 (91호)	곽학송	집경의 마을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8 (92호)	이종근	부활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9 (93호)	이영준	빛과 그림자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10 (94호)	이성훈	그 겨울의 나뒹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11 (95호)	윤강원	자유행	소설	[반공 단편소설]
1979.12 (96호)	이동희	30년 만에	소설	[반공 단편소설]

러나 실제 연재된 횟수와 마지막 회차에 표기된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회차를 적어두었다. 가령 마지막 회가 12회로 표시되어있지만, 중간에 한차례 누락되어(혹은 잘못 표기된 채로 넘어가서) 11회 연재된 경우에도 '총 12회'로 적어두었다.

- 21) 오제도가 편집한 『적화삼삭구인집』(1951, 보도연맹)에 실린, 한국전쟁 당시 '잔류파' 지식인(문인) 9명의 '적지 90일'을 고백한 글이 잡지에 재수록된 것이다. 표에는 일부만 기록하였다.
- 22) 체코 작가인 차베크의 해당 소설을 비롯하여 20호에 총 5명의 동구권 작가들의 소설을 한 편씩 소개하고 있다. 이후에도 동유럽 작가 등 공산권에 속하는 문학작품이나 평문 등을 번역하여 실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전향하였거나 체제 비판적인 작가들의 작품인 경우가 많다. 지면의 경제를 위해 이하 생략하였다.

##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북한』

- 김광섭,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 김종삼, 이민호 외 편, 『김종삼 정집』, 북치는 소년, 2018.
- 김지향, 『김지향 시전집』, 양문각, 1998.
- 김현승, 『김현승 전집』, 시인사, 1985. 문덕수, 『문덕수 시전집』, 시문학사, 2006.
- 박남수, 『박남수 전집 1·시』,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8.
- 박두진, 『박두진 시 전집』(1-4), 흥성사, 2017(1); 2018(2-4).
- 박이도, 『박이도 문학 전집』, 창조문예사, 2020.
- 박제천, 『박제천 시 전집』, 문학아카데미, 2005.
-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 설창수, 『설창수 전집』, 시문학사, 1986.
- 이동주, 송영순 엮음, 『이동주 시 전집』, 현대문학, 2010.
- 이성교, 장지의 편, 『이성교 시 전집』, 형설출판사, 1997.
- 전봉건, 남진우 편, 『전봉건 시 전집』, 문학동네, 2008.
- 정현중, 『정현중 시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 조병화, 『조병화 시전집』, 국학자료원, 2013.
- 진을주, 『진을주 시전집』, 한누리미디어, 2017.

### 2. 논저

- 김현철, 「1970년대 초 박정희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자주·통일 외교의 모색」, 『통일정책연구』 13, 통일연구원, 2004.
- 박용재, 「소서(所興)로서의 고향과 그 주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 이동순, 「김현승의 시의 서지오류와 발굴작품 연구」, 『비평문학』 70, 2018.
-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인과」,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이성주, 「김종삼 시에서 실증연구의 중요성과 「흙」, 「남과 북」의 발굴과 의의」, 『현대시학』 2019 3/4월 호.
- 장세진, 「『청맥(靑脈)』 혹은 실증된 유산들의 아카이브 - 1960년대 중반 통일 담론을 중심으로 -」, 『사이먼 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 전지니, 「유신 이후의 반공영화와 오제도라는 '신화' - 영화 특별수시본부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6, 한국극예술학회, 2017.
-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 The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agazine *North Korea*

- Based on poems from the 1970s -

Lee, Seong-Ju\*

*North Korea*(『북한』) is a monthly magazine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January 1972 and has been published until the present. This study argues that this magazin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academic world, is a suitable subject of literary research to explore the historical meaning of *North Korea*, especially regarding poetry. In this regard, first, although *North Korea* is a politically biased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there are not a few articles in this magazine that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iterature such as poetry, novels, criticism, handwriting, and various prose. In the case of poetry, it is noteworthy that it includes works of poets that are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some of the works include previously unknown poem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ir collected works. Second, several poems included in *North Korea* are characterized by their use of war, North Korea(hometown), and unification. Of course,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examples of poems mobilized for politics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Taking a closer look at the poems in *North Korea* is necessary, however, as the poems were not homogeneous despite dealing with the same subject matter. As an early study looking at *North Korea*, this study mainly aims to first reveal the value of the magazine as a literary source by organizing and analyzing

---

\* doctoral program at Dongguk University

the literary works in the magazine. Consequent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aling in earnest with a literary magazine that has not been the subject of research, and in introducing heretofore unknown poetry to the academic world while analyzing this poetry in relation to the magazine.

**Key words:** *North Korea*(『북한』), Unification Discourse, Division Consciousness, Park Chung Hee, Kim Jong Sam, undiscovered poetry